

14. 조선후기의 회화(3)- 풍속화의 유행

1. 풍속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2. 조선후기 풍속화의 전개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3. 풍속화를 그린 화가들에 대해서 알아보시다.

1. 풍속화의 개념과 조선후기 풍속화의 전개

- 풍속화란 인간의 다양한 일상 생활 장면을 묘사한 그림.
- 풍속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한 시기는 조선후기, 즉 18세기부터이다.
- 실학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 지리, 문학, 언어, 기타 실생활 등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진경산수화와 더불어 새롭게 대두되었다.
- 18세기 전반기에 윤두서 일가, 조영석 등 사인(士人) 화가들이 시작
- 18세기 후반기에 김득도, 김득신, 신윤복 등 직업화가들에 의해 절정을 이룸.
- Cf) 광의의 풍속화는 모든 계층의 생활상, 즉 궁중기록화, 계회도, 무일도, 경직도, 평신도 등을 포함.

3. 조선후기 풍속화 화가들

윤두서(尹斗緒, 1668-1715)

<채애도>

윤덕희(尹德熙, 1685-?)

윤두서의 아들. 호는 駱西, 蓮翁, 蓮圃.

윤용(尹儆, 1708-?)

자는 君悅, 호는 靑臯, 莢軒.

조영석(趙榮祐, 1686-1761)

-28세에 진사, 33세부터 벼슬. 40년간의 긴 관직생활.

-士人名畫三齋: 謙齋, 玄齋, 觀我齋

-고씨화보, 당시화보 같은 중국 화보 보고 그림 수업.

-함안 조씨는 노론계의 신흥명문으로 당대 노론의 거족인 안동김씨·연안이씨와 긴밀한 학연, 혈연 맺어.

-1735년(영조 11) 50세, 의령 현감 때 세조 영정 모사의 일에 동참하도록 어명을 받았으나 거부하여 파직됨.

-1748년 (63세) 숙종어진 중묘에 참여하라는 왕명도 거부함.

<목기잡기> 윤두서 그림의 중국풍 사라지고 조선인 등장. 그을린 일꾼의 가식없는 모습에서 서민 체취가 느껴진다.

<새참>

* 《사제첩(麴臍帖)》 15점의 스케치 들어있는 화첩, “勿示人 犯者 非吾子孫.”

※윤두서는 조선의 소재 택했어도 화풍까지 조선식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반면, 조영석은 현실 속에서 소재 취하고 새로운 풍속화 표현 방식 개발하였다. 통속적 자유로움을 지향하면서도 아취있는 엄격함 표현하여, 풍속화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였다.

姜熙彦(1738-1784 이전)

자는 경운(景運), 호는 담拙(澹拙), 관은 감목관(監牧官).

<사인삼경도(士人三景帖)>

-文·武·藝의 기량을 겨루는 선비들의 습속을 담은 풍속화.

金弘道(1745-1806)

-자는 士能, 호는 檀園, 丹邱, 西湖, 高眠居士, 輒醉翁, 관은 현감.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원(畫員).

-진경산수화, 풍속화, 남종화, 도석인물, 고사인물, 영모화조, 사군자, 초상화, 기록화, 불화, 판화에 이르는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명작을 남긴 대가

-안기찰방과 연풍현감 지냄.

-어려서 강세황에게 배움.

-정조(正祖)의 절대적인 후원 속에서 한국적 특성이 두드러진 ‘김홍도 화풍’ 확립, 한 시대의 양식으로 확산시킴, ‘국화(國畫)’ 화선(畫仙)’

-화원 30명 가운데서 더욱 우수한 자 10명을 별도 선발하여 각별히 우대하면서 운영하였던 규장각의 자비대령화원제(差備待令畫員制)에서조차 특별히 열외되는 대우를 받음.

“김홍도는 그림에 숨겨 있는 자로서 그 이름을 안 지가 오래다. 30년쯤 전에 초상을 그렸는데 이로부터 무릇 그림에 관한 일은 모두 홍도를 시켜 주관케하였다.” 『홍재전서』 권7

-《행려풍속》 먼 길을 여행한 작가가 도중에 목격한 몇몇 장면을 이야기 삼아 그린 듯.

‘戊戌初夏 士能寫於澹拙軒’: 1778년(34세) 강희언 집에서 그린 것으로 보임.

《단원풍속화첩》

-서민들의 생활감정과 삶의 분위기 등을 눈앞에서 보듯 생생하게 묘사.

-배경 설명을 생략하고 인물 중심으로 구성하여 한층 박진감 넘치고, 원형구도 등을 이용하여 짜임새 있는 구성의 묘로 회화적 효과를 높임. 사실적이고도 해학에 넘치는 동작의 묘사 등 김홍도의 탁월한 기량 실감케 한다.

-정두묘, 조해묘(棗核描)

*규장각 자비대령화원 녹취제에서 ‘속화’가 정식 시험 과목으로 채택됨. 녹취제 8개 화문(畫門) 가운데 ‘속화’를 가장 많이 출제함. ex) 1789년 정조는 ‘조운 선박의 점검(漕船點檢)’과 ‘논밭의 새참(稻田午籩도전오엽)’이라는 속화 화제를 출제한 뒤 “모두 보자마자 꺾꺾 웃을 만한 그림을 그려라”고 특별히 지시함. 해학과 익살을 직접 요구한 것. --규장각 주변의 궁중화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매우 활력있고 생기 넘치는 풍속화와 책거리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던 것은 정조의 취향이나 정조가 주도했던 규장각 자비대령화원 제도와 연결. (강관식, 조선의 국왕과 궁중화원, 조선왕실의 미술문화, 대원사, 2005)

金得臣(1754-1822)

화원. 자는 賢輔, 호는 兢齋. 관은 첨사, 복헌. 김응환의 從子.

<밀희투전> 투전 장면의 분위기를 각기 다른 포즈의 동세로 적절하게 포착한 뛰어난 기량.

<성하삼리> 배경 설정은 표출하고자 하는 畫意를 적절하게 포착케 하는 유기적인 기능까지 담당. 김홍도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자신의 독특한 화격을 이룩한 김득신의 기량을 말해줌.

申潤福

화원. 자는 笠父, 호는 蕙園. 관은 僉使. 화원 신한평의 아들.

한량과 기녀 등 남녀간의 로맨스나春意를 주로 묘사.

에로틱한 분위기 살리기 위해 배경 중시. 가늘고 유연한 필선과 아름다운 색채 효과 최대한 실림. 세련미와 정취를 강하게 풍김. 김홍도의 풍속화와는 다른 세계로 승화 발전시킴.

《혜원전신첩》 신윤복의 완숙한 풍속화 면모 보여주는 대표작. 국보 135호로 지정됨. 30 폭으로 이루어짐.

《여속도첩》 국립중앙박물관: 배경 생략하고 인물만 부각시킴.

劉淑(1827-1873)

화원. 자는 善永, 호는 蕙山, 관은 司果.

전 유숙, <대궐도>

金俊根

호는 箕山

-19세기 말에 서울, 부산, 제물포 등 개항장에서 외국인에게 풍속화 그려 팔았음.

-민속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물은 표정 변화가 적고, 비슷한 형태로 그려, 삽도와 같은 인상.

대체로운 색감 구사한 점은 서구인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임. 필선이 유려하며 인물 개개의 묘사에 숙련된 점이 있으나 화격이 떨어짐.

【참고자료】

안휘준, 『한국회화사』, 일지사, 1980

진준현, 『단원 김홍도 연구』, 일지사, 1999

안휘준, 『한국회화사연구』, 시공사, 2000

정병모, 『한국의 풍속화』, 한길아트, 2000

유홍준, 『화인열전』, 역사비평사, 2001

이내옥, 『공재 윤두서』, 시공사, 2003

오주석, 『단원 김홍도』, 열화당, 2004

홍선표, 『(한국의) 전통 회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박은순, 『공재 윤두서: 조선 후기 선비그림의 선구자』, 돌베개, 2010

『한국 역대 서화가 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